

2022년 북한의 정치·외교 전망

서보혁(통일연구원)

1. 개관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 2021년 12월 27~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 의제는 ▲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결산)와 202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 “2021년도 국가예산 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 “당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데 대하여”, ▲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하반기도 당조직사상 생활 정형에 대하여”, ▲ “조직 문제” 등 6개
 - 위 의제가 “전원일치로 승인”(2022.1.1. 중통)

- 2022년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고 위 전원회의 결정으로 대신
 - 북한은 2019년 말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021년 초 제8차 당 대회 결정을 신년사로 갈음한 바 있음.

□ 북한의 2021년 총평

-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은 엄혹한 난관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으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이라는것이 당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
 - 김 총비서는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12.1.)에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해는 올해에 못지 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하는 중요한 해”라고 언급
- 「로동신문」 등 북한 관영언론의 평가
 - 김정은 집권 10년을 “자강력 제일주의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하고 그 이유로 김

위원장의 위민헌신, 과학과 교육의 10년, 자존심과 창조력 강한 인민 육성, 전략 억제력 강화 등을 꼽음.(12.20 노동)

-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과 '영도력' 하에 “우리 당 강화발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역사적인 해”, “승리의 해”(12.10 노동)

-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축적한 올해”(12.25 노동)

-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가 일색화되고 일심단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여 총비서 동지를 따라 기적과 승리를 떨쳐온 10년”(12.22 노동)

- “21년은 시련에 있어서 건국 이래 최악이고 위민헌신에 있어서는 10년의 절정”, “공화국이 쟁취한 모든 성과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12.20 노동)

□ 북한의 2022년 전망

○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구호 제시

○ 내치 치중 전망

-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올해(2021)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년도 고삐

-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개선정책을 통해 안정 지속과 성장 추구

○ 특히 농업생산과 지방산업 발전으로 지역균형 성장 도모

- 금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으로서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을 제시

- 특히 나라의 알곡생산구조 변경(쌀, 밀 위주)을 강조

- 특히 삼지연을 “전국의 지방들을 개변시키는 장기적인 대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 나갈 리상적인 본보기, 산 경험”으로 평가

-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으로도 언급

-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시·군으로 확대해나가야 나라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이상사회를 하루 빨리 일떠세울 수 있음.”(노동 12.21)

○ 동의와 강제를 결합한 ‘생산성의 정치’

- “당은 위민헌신, 인민은 일편단심!”(12.22 노동)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3대혁명 쟁취운동을 연결(12.28 노동)
 - ▲ 삼지연시·마식령스키장·양덕온천문화휴양지·여명거리 70층 아파트 등 건설 실적, ▲ 심야열병식, 화성포-15형, 북극성 등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주요 성공 사례 선전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시, 군 강화의 위력한 무기”,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통한 위한 발전 추동 촉구”(12.5 노동)
 -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3대 영역의 새로운 혁명”, “3대혁명노선은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견인하는 추동력”(12.14, 노동)

○ 대외·안보정책은 기존 노선 견지 하 수동적 태도

-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
 - * 노동당 8차 대회(2021.1.5.~7)에서 김정은의 언급
 -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2. 대내정치 평가

○ 김정은 위상 강화

- 금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며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
 -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 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할 것을 강조
 - 통치 10년 동안,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서 김정은 주도, 당 중심 유일영도체계 확립
 - * 김정은 지도 하에 “혁명무력이 당중앙결사옹위의 전위대오, 당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정치사상강군으로 강화”(12.30 노동)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 당군으로 성장해온 10년사”(12.22 노동)

○ 당의 지도·통제기능 제도화

- 당 대회, 대표자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정치국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 당세포비서대회, 초급당비서대회 등 당 조직 전면 가동으로 ‘당-국가 체제’ 확립

- “전당적으로 당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이고 당안에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며 간부대렬을 순결하게, 견실하게 다져야 한다”

- 10년간 꾸준한 세대교체와 능력 위주 인사’

* 금번 전원회의에서 박정근(내각부총리)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리태섭(사회안전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된 것은 임무 달성 평가의 의미

* 김정은은 “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새 세대 인민군 지휘 성원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 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2.24.)

○ 이념

-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3대 구호: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 ... 자력갱생은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으로 구체화(8차 당대회, 12.28 노동)

* “자력갱생이야말로 강국건설의 힘있는 동력”, “자력갱생의 길은 우리의 불변한 발전침로”(12.28, 노동)

-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이다”(12.28 노동)

○ 코로나 대응의 정치적 의미

- 전원회의 결론에서 김정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 1 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종대사로 다시금 지적”

- “나라의 방역 기반을 과학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방역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력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고 언급

- 이는 ▲ “확진자 0”의 성과를 지속해 ‘생명정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로서, ▲ 자력갱생 노선을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시사

- 코로나 대응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국제 인도협력, 개발협력 전개 가능성

* 2021년 7월 유엔에 SDGs 관련 VNR 제출, 북중 국경지대 교역 대비 방역 강화 등

3. 안보정책 전망

□ 전원회의 논의

○ 금번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다만, 전원회의 결론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

○ 안보정책의 핵심 과업으로

-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훈련제일주의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하”고,

-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하고,

- 민간 차원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의 관련 보고

-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실현을 군수산업의 중핵적인 목표로 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

□ 북한 관영언론 등의 논조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0년 기념 김정은 영도력 강조(12.30 노동)

- “강력한 전쟁억제력, 평화수호의 최강의 보검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 “자위적 국방력을 최강의 것으로 더욱 다지고全民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 “군민의 단결된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함.”

○ 군사적 균형을 위한 국방력 강화의 절박성 강조(12.1 조선신보)

- 한미합동군사연습, 공격형 무기 반입, 미중 대립구도 격화 등 “미국의 조종 밑에 이루어지는 군사정치적인 환경변화는 많은 전망적인 위험을 배태하고 있으며 조선이 더욱 강력한 실체로 변해야 할 절박성을 제기하고 있음.

4. 대미정책 전망

○ 금번 전원회의를 비롯, 근래 북한의 정세 인식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미관과 대미정책의 기초는 유지될 것

-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을 엄숙히 천명”하는 한편,

-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 근래 북한 외무성의 미국 비난

-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대미 비난(12.28 노동)

-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12.16 노동)

- 중국의 미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비난(12.10 노동)

-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12.2)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미온적 태도 비난(12.11; 12.13 노동)

- 미국의 인종차별·이주민문제 관련 인권실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 러·독 가스관 ‘노드 스트림-2’ 관련 기업 제재 시도 등 미국에 대한 비난 지속(12.7 노동)

- 대만 문제로 인한 정세긴장, 민주주의 정상회의(12.9~10) 계기 ‘민주주의’ 정치 도구화, 아프가니스탄 위기 초래 관련 대미 비난(12.7 노동)

- 미국의 북한 등 10개국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 비난(12.1 노동)

-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를 미국 주도의 주권침해행위라고 규탄(11.21 중통)

- 미국이 북한의 신행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

게 생각한다”고 언급(10.21 중통)

○ 북한은 대외 정세가 엄중하고 불확실하다고 보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어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

- 바이든 정부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무의미하다고 일축해오고 있는데, 제재국면 지속 하의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종의 압박으로 인식
- 현 코로나 및 제재 국면을 핵능력 강화 및 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
- 정세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관망하며 핵역지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의도
- 다만, 미국의 공식 대화 제의가 있을 경우에 회담의 성격으로 핵군축 회담, 회담 의제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반응할 가능성

*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의 관련 언급

-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성된 정세속의 현실은 군력강화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

5. 대남정책 전망

○ 금번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 관련 논의는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음.

- 기본방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의 김정은의 발언과 같고, 전술은 공개하지 않을 필요 때문

* 노동당 8차 대회에 보고에서 김정은의 관련 언급

-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목

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것이다.”

- 보고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보고는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종전선언 제안은 제재국면 지속 하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유효성에 의문

- 작년 9월 하순 김여정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을 기대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 몇일 뒤 김정은은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 대남정책 역시 북한이 먼저 움직일 동인이 부족해 관망 혹은 수동적 태도

- 남한의 선거 일정, 코로나19 팬데믹 지속, 북한의 대내 중심의 정책 등으로 상반기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종의 ‘전략적 인내’ 양상, 그 결과 상반기 남북관계도 휴지기

- 하반기는 남한의 대선 결과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에 따라 북한(혹은 남한)의 남북대화 제의→ 남북대화 재개→ 선 남북협력(보건·농업·인도협력 등)→ 후 북미 핵협상의 개연성

* 그러나 보수성향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 표류 가능성